

서울시, 시민 일상 공공성 대폭 강화

서울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심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상반기 출범한다.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마을의사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 운영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 2022년 80개소 확충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도 도모한다.

시는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찾동·의료기관에서 발굴·외환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 후 전문기관 등으로 연계해주고 대상자별 사례관리도 한다.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를 2022년 80개소(현재 28개소)까지 확

충하고 시민건강학교, 주민건강이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분야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돌봄 SOS 센터'도 신설된다. 돌봄 SOS 센터는 찾동 내 설치되고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통해 저소득 시민에게 형광등 교체, 병원 방문동행, 이불세탁 같은 일상 편의서비스를 '우리동네 나눔장터' 사업과 연계해 제공, 돌봄 체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체육관 우선 건립(29개교), 스마트기기 지원 등을 통한 미래형교실 구축(매년 30개교), 특성화고 드론과화실·드론교육원 조성(4개교) 등이다. 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10개교), 학교 지하주차장 확충(10개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 공유정책 인기는 '따릉이'

시민 대상 인지도 조사·활성화기대사업 '주차 1위'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유정책 중 시민 만족도 1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지난해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서울시 공유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 동안 서울시 공유정책을 이용했던 시민 비율은 55.4%였다. 이 가운데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38.9%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98.9%로 서울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나눔카(91.0%) ▲아이웃, 장남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사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유도시에 대한 인지도는 59.8%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58.3%였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서비스 이용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 편리성'이 62.7%로 가장 높았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유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본 시민은 그 이유로 홍보 부족(42.9%)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로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공유'가 95.7%로 가장 높았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공유정책을 이용했던 시민 비율은 55.4%였다. 이 가운데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38.9%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98.1%) ▲공공 공간 시설 공유(90%) ▲공공 대여소(88.7%) ▲아이웃 장남감 공유(87.9%) 순으로 조사됐다.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80%가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 및 공유 문화 확산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유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 6년간의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공유 정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공유 서비스 확산을 위해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서울시 신년 행사에 '대통령 헌정곡' 사용...박원순 "제 불찰"

SNS통해 공식 사과... "실무진들의 부주의"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인 '미스터 프리젠티'를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은 9일 공식 사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서울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 시장은 행사장에서 입장할 때 나온 배경음악이 2017년 9월 작곡가 김형석씨가 특별히 문 대통령을 위해 작곡한 헌정곡 '미스터 프리젠티(Mr. President)'였다.

김씨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음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문 대

통령을 위해 작곡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가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상이 공유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친문(親文) 지지자 들은 청와대 공식행사에서도 사용하는 곡이 서울시 공식행사에서 사용되는건 옳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올렸고, 서울시 측은 영상을 삭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실무진들의 부주의도 다 저의 불찰"이라며 "김형석 작곡가가 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령계 헌정한 곡을 쓴것은 있어서 안될 일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로 인해 상심하셨을 모

든 분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더욱 꼼꼼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나눔 활동 시범사업

4500만원 상당 여성용품

서울시가 카카오커머스, 유한킴벌리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나눔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0일 오후 2시40분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나눔 전달식을 연다. 이번 시범사업은 불품 수령 사실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취약계층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최소화하고 선물을 받는 행복한 느낌을 전달하기 추진했다.

기존의 일방적인 불품 전달체계를 벗어나 대상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기존 전달체계는 관계 기관 등에서 대상자 주소를 받아 직접 전달하거나 대상자가 관계 기관에 수령하러 오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관계 기관에 대상자 연락처를 받아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상자가 수령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택배로 배송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YELLOW GIFT 선물상자로 전달된다. 서울 강서지역 청소년 1500명을 위한 여성용품 박스 나눔이다. 시는 유한킴벌리, 카카오커머스와 함께



약 4500만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청소년들에게 선물한다.

뉴스1



지역공감 마케팅 전문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